

과감한 시설투자로 병아리 생산원가 인하유도

김 지 태/한일시료 영업부장

80 년대를 보내면서 부화업계를 돌아보면 ‘하면 된다’는 한마디가 문득 떠오른다.

업계의 사황이 걸린 작년 불황기에 부화인 모두가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가격안정을 위해 모두들 한자리에 모인 결과가 금년은 물론 내년도도 호황을 지속시킬 수 있는 여력의 밑바탕이 된 것 같다.

흔히들 부화경기는 4년주기로 1년은 불황, 2년간은 평년작, 1년은 호황의 패턴으로 올림픽이 4년마다 개최되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나타나곤 했다.

80년대 초와 말의 부화업계 변화를 보면 첫째 병아리값에 있어서 최고가격이 실용육용계는 350원, 산란계는 450원까지 형성되어 최근 450원, 650원까지 입추되는

것으로 보아 100원정도의 상승으로 타물가에 비해 제자리 걸음만 유지한 것으로 그에 반해 사료값, 인건비, 시설비 등 기타 내용은 상상을 초월하리 만큼 올라 부화업계의 어려움은 컸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면 무엇으로 대응했는가? 바로 두번째로 규모의 확장을 들 수 있다.

80년초 육용병아리 생산량이 월간 500만수 정도로 최근에는 월간 2,000만수 정도를 넘는 수준으로 신장되어 수당이익은 현저히 줄어든 가운데 전체 규모면에서 경영수지를 맞춰 나온 것으로 보이며 또한 부화장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느껴진다.

더욱이 금년 한해를 뒤돌아보면 부화업계로서는 다시 볼 수 없을

정도의 호황을 누렸고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우리의 설 땅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을 부화업계에서는 대비해 나가야 되겠다.

첫째, 병아리 생산원가의 상승을 들 수 있다.

200원 내외의 생산비에서 300원에 근접하는 육용병아리 생산비 상승은 농장의 오염과 시설노후화 등으로 종계의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짐에 따라 병아리값의 상승은 어쩔수 없는 지경에 다달았다.

그러나 문제는 수입개방화 시대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외국의 육계값은 자꾸 내려가는데 반해 국내 육계값은 올라가면 1차적으로 육계농가의 파산과 함께 부화장의 설 땅은 어디이겠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때인 것 같다.

둘째 GPS의 적정수수 유지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최근의 육계값 호황은 실용병아리값을 올리고 그에 따라 병아리 생산의 증가가 불가피해진다. 병아리값의 상승 또한 PS입식을 늘리게 되면서 PS가격이 상승하여 GPS 사육수수의 증가로 귀결되어진다. 이러한 현상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다고 볼수도 있다. 금년들어서는 GPS의 사육수수가 예년에 비해 50%이상 증가하고 있어 90년 후반기 PS의 과잉 생산으로 91년 내지 92년 육계불황은 불보듯 뻔한 것 같다. 앞서 말한 부화경기 주기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지 않나한다. 매년 보지만 올림픽 특수기대로 생산과잉을 초래하여 육계불황을 겪어왔는데 88서울올림픽이 그러했고 84년의 불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다.

92년의 올림픽 때도 그와 같은 가능성에 접근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업계가 원활히 수습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스럽다.

셋째, 생산성향상을 위한 과감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수입개방화가 목전에 다달아 부화업 자체가 사양산업으로 보는 시각이 높아져서 그런지 투자에 상당히 인색한 것 같다. 예전 같으면 금년 같은 호황에 신규 종계장

이 우후죽순 처럼 생겨나는데 비해 신규업자의 출현이 거의 없는 것을 볼때 물론 사회적인 여건변화와 신규시설에 많은 제약여건이 따라다니지만 시설개선도 활발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추세라면 생산성향상은 커녕 계속 퇴보하지 않을까 염려도 된다. 이런 측면에서 생산비를 낮추는데 과감한 투자자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네째 적정가격에서 지속적인 병아리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육계가격이 등락을 거듭하는데는 계절적인 닭고기 수요의 진폭이 큰 것도 있겠지만 병아리 가격

의 등락이 심한데도 기인된다. 1년전만 해도 병아리 수당 50원에서 현재 450원까지 거래되는 등 생산원가의 개념을 초월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화장은 50원 시세에서는 병아리 생산을 줄이고 450원에서는 생산을 늘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 여겨진다.

육계값은 병아리값의 향방에 따라 춤을 출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가격불안정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 생각된다. 이러한 대책은 부화장에서만 노력한다고 이룩되지는 못할 것으로 육계업자가 협력할 때 다소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말해 인위적인 종계입식의 감축, 외식산업체 급증으로 인한 소비 폭증, 종계 및 육계농장의 생산성저하 등 의외의 여건변화로 가격안정을 가져온 금년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근본적인 가격안정방안을 세워나가야 되겠다.

즉 병아리를 공급하는 부화장과 공급받는 육계농장과의 신뢰에 의한 병아리거래 질서가 확립될 때 병아리 생산조절이 가능해지고 원가인하요인을 최대한 이용하여 향후 닭고기 수입개방압력에 전양계인의 단합된 힘을 한곳에 모아 값싸고 우수한 닭고기 공급자로서 긍지를 가지는 미래가 90년대부터는 기대된다. **양계**

“
**적정가격에서
지속적인 병아리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육계가격이 등락을
거듭하는데는 계절적인
닭고기 수요의 진폭이
큰 것도 있겠지만
병아리 가격의
등락이 심한 데도
기인된다.**
”